

보성군, 소외 없는 의료복지 실현 '주력'

어르신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 완화로 확대 김철우 보성군수 "군민 건강 최우선 정책 발굴"

보성군이 군민의 건강과 소외 없는 의료복지 실현을 위해 의료취약계층인 어르신 '의료복지'에 힘을 쏟고 있다. 13일 보성군에 따르면 어르신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성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선 7기부터 군수 공약 사업으로 시작해 민선 8기에는 대상 사업과 지원 대상자를 확대 추진한다. 어르신 의료복지 사업 중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백내장 수술비 지원, 전립선 질환 검사비 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 등 의료비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백내장으로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의 눈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백내장 수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중위수

득 120%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했으며, 지난해부터 더 많은 이들의 혜택을 위해 소득 기준을 150% 이하로 완화하고 대상자를 확대 지원했다. 1인 기준 25만원 한도 실비를 지원하며, 2024년 2월 기준 1천여명이 수술을 받고 시력을 회복했다. 또 50세 이상 보성군 남성은 누구나 보건소에서 절립선 질환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2천여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 중 10명이 암 진단을 받아 조기치료를 진행했다. 보성군은 증상이 없더라도 50세 이상

남성에게 매년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고령의 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50% 지원하며, 50세 이상 수급자·65세 이상 차상위에 무료 접종을 제공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대상포진 발병을 예방하고 있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의 감염 이후 몸 안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에서 발병률이 높다. 50세 이상 보성군민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3만9천원에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구강검진, 치석 제거, 불소도

포, 틀니 관리비 등 구강질환 예방관리에도 힘쓴다. 특히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으로 임플란트(평생 2개) 시술비와 틀니, 보철비를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치매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교육 등 맞춤형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치매 중증화 억제·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치매 환자 와 가족,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군은 치매 파트너와 치매 파트너 플러스 양성 등 고령 친화적 정책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은 60세 이상 군민 중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2차 진단 검사까지 무료로 진행하고 감별검사는 중위수 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상한 8만원의 실비를 지원한다. 김철우 군수는 "올해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은 1천418억원으로 어르신·청소년·아동복지 등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군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의료복지 정책을 발굴·확대해 '더 건강하게, 더 가까이, 더불어 함께하는' 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보성=임병영기자



담양군이 오는 4월5-6일 금성면 외추계 일원에서 제1회 고비산 산벚꽃 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고비산의 산벚꽃이 만개한 모습. <담양군 제공>

담양군 '제1회 금성면 고비산 산벚꽃축제'

내달 5-6일 고비산 외추계 일원서 개최

담양군은 13일 "제1회 금성면 고비산 산벚꽃축제"가 4월5-6일, 군 금성면 외추계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담양 고비산의 산벚꽃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주민 화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한다. 금성면 고비산 산벚꽃축제 추진위원회가 주최하며 금성면·사회단체가 후원한다.

축제에는 떡 메치기 행사, 금성 딸기 판매·체험 공간 등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돼 있으며, 4월5일 오후 2시 개막식에는 '자기야'를 부른 가수 박주희를 비롯한 초대 가수들의 공연, 주민 노래자랑, 지역민 풍물놀이 등 각종 콘텐츠가 마련됐다. 특히 축제 기간 동안 '제1회 금성면 고비산 산벚꽃 전국 사진 촬영대회'가 개최된다. 고비산 산벚꽃의 아름다움

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전국의 사진 작가들이 모여 축제가 한층 풍요로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상호 금성면 고비산 산벚꽃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고비산 산벚꽃의 아름다움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축제를 개최하게 됐다"며 "처음 개최하는 축제라 미숙한 부분도 있겠지만 방문 후 함께 즐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중 금성면장은 "앞으로 금성면 고비산 산벚꽃축제가 지역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담양=정승규기자

곡성군, 청년 근로자 주거비 지원 무주택 전·월세 거주 청년 대상

곡성군은 13일 "청년 취업자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군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 월 20만원의 주거비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곡성군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이다. 해당 청년들은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며 최근 6개월 내에 최소 3개월 이상 근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곡성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청년들은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해 오는 22일까지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군에 정착해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정신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천진기자



화순군 '사평 빨래방' 세탁서비스 개시

65세 이상 어르신·취약계층 전액 무료

화순군이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수거부터 배달까지 전액 무료로 제공하는 '화순 사평 빨래방'을 운영한다. (사진) 13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 사평 빨래방은 지난 2022년 9월 '2023년 사평면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환경과, 농촌활력, 사평면의 예산을 투입해 부지 구비와 건축을 완료,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맡았다. 사평 빨래방은 고령의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이불 같은 대형 빨래를 세탁하기 어려워 하는 점에 착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했다. 대형세탁기, 건조기 등 세탁에 필요한

전용 장비를 구축하고 지난 2월20일부터 8일까지 관내 관공서, 사평면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마쳤다. 200개 마을 별 일정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30개의 수거·배달 전용 차량을 투입해 본격적인 수거·세탁·건조·포장·배달 등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차상위 등 취약계층은 전액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사평 빨래방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정기적인 세탁물 수거활동으로 주민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어 사회 안전망도 더욱 탄탄해 질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로 사평 빨래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이병철기자

장성군, 과수 병해충 예방 '총력'

334농가 256ha농지에 방제약제 3종 지원

장성군이 과수 병해충 사전 예방에 총력을 쏟고 있다. 13일 장성군에 따르면 사과, 배 농가에 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334농가, 256ha 규모 농지에 방제약제 3종을 지원했다. 화상병은 사과·배나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세균병이다. 전염성이 높아 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은 즉시 폐원하고 기주식물 재배를 2년간 금지한다.

화상병을 예방하려면 꽃이 피기 전 1회, 꽃이 핀 후 2회 등 총 3회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방제작업을 마친 농가는 약제방제확인서와 약제봉지를 1년간 보관한다. 농가에서는 증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5-6월에 예찰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을 발견 시 즉시 장성군 농업기술센터(061-390-8433)로 신고한다. 장성군은 사과 배 농가에 대한 현장 지도를 추진하고, 현수막 게시 등을 통

해 화상병 예방 준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병해충 예방·방제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평년에 비해 사과 개화기가 8-10일, 배 만개기는 2-4일 가량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과수 상태가 좋지 못한 과원은 요소 0.3%(1.5kg/500L), 붕산 0.1%(0.5kg/500L)를 화상병 1차 방제약제 살포 시 섞어서 뿌리면 저온 피해를 줄이고 착과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장성=김문태기자

광양제철소, 제1회 안전소통행사 성료

고순도니켈사업추진반, 최우선 가치 '안전' 역량 도모

광양제철소는 13일 "고순도니켈사업추진반이 제1회 안전소통행사를 개최해 '안전해서 행복한 일터'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가동을 목표로 연산 2만 규모의 고순도니켈정제공장을 건설 중인 고순도니켈사업추진반은 광양제철소가 올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만큼 첫 시운전을 앞두고 조직 결속력 강화·안전 역량 향상을 위해 안전소통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행사에는 포스코 직원 뿐만 아니라 포스코 엠텍,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등 고순도니켈정제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65명이 전원 참석했다. 안전소통행사에서는 참가자들을 4개의 팀으로 나눠 ▲화학물질 보호복 올바르게 착용하기 ▲공기호흡기 착용

하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실행 ▲10대 안전 철칙 숙지를 목적으로 삼아 1등을 가리는 경진대회를 진행했다. 특히 경진대회에서는 '안전'이라는 가치를 몸소 체득할 수 있고, 부족했던 부분을 피드백·재습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자연스러운 안전 역량 향상을 도모했다.

'안전해서 행복한 일터' 구현 의지를 다짐하는 안전 포어 공모전도 진행됐다. 다양한 표어가 공모된 가운데 '99%의 니켈보다 100% 안전이 중요합니다'는 표어를 제시한 이주영 대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서강철 광양제철소 고순도니켈추진반장은 "이번 고순도니켈공장 시운전의 목표는 100% 안전 확보와 99.9% 순도의 니켈 생산"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삼아 추진반 전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기자



여수시 '제1회 건강체험마당' 개최

16일 웅천천수공원에서 19개 체험 부스·맨발 걷기

여수시는 13일 "오는 16일 웅천천수공원에서 '제1회 미항여수 건강체험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모든 시민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미항여수'를 주제로 여수시민 건강의 날(3월4일)과 세계비만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제별 건강 체험 부스가 운영되고 건강 걷기 행사가 진행돼 전세대가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꾸며졌다. 건강 체험 부스는 ▲체성분검사 ▲고혈압·당뇨병 관리 ▲빈혈검사 ▲비타민D검사 ▲금연 ▲스트레스·우울 마음 건강 체험 ▲중독관리 시력검사 ▲안경

피팅 ▲심폐소생술체험 ▲체력 측정 ▲아토피 예방 ▲구강건강 ▲암 관리 등 19개로 체험 후 선물도 받을 수 있다. 오후에는 웅천천수공원-선소-선소대교에서 다시 웅천천수공원으로 시민 건강 걷기 행사를 진행하고, 웅천해수욕장에서는 맨발 걷기 행사가 열리며 참여자 500명에게 기념품을 제공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다양한 건강 행사를 체험하고 새롭게 건강 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순천 청춘창고, 청년 예술인 공연 진행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노래·미술 등 공연 개최

순천시가 청춘창고에서 시민·관광객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청년 예술인이 꾸리는 문화예술 공연을 진행한다. 공연은 오는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청춘창고 내 무대에서 개최된다. 지역 청년 창업지원 공간이라는 청춘창고의 특색에 맞게 관내 청년 예술인이 중심이 돼 노래, 미술, 악기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을 펼친다. 첫 공연은 지난 2일 청년 공연팀 '라벨'이 사랑을 주제로 노래를 불렀으며, 가족·연인 단위의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연중 진행될 청년 예술 공연을 통해 청춘창고가 창업공간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볼거리가 있는 복합문화공간의 역할도 더욱더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순천=정기기자